

##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다



방수길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대만의 칼을 가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평생을 부엌칼을 갈며 살아온 노인은 대만 특급 호텔 주방장들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리의 대가들은 칼은 곧 생명이라 여기는데, 노인은 그 칼들에게 숨을 불어 넣는 역할을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노인이 칼을 가는 모습은 겉으로 보서는 일반적인 칼을 가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노인의 칼을 가는 기술이 아주 단순하고 그다지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노인이 수 십년 걸쳐 축적된 칼을 가는 노하우와 고민들이 보다 더 쉽고 정교하게 칼을 가는 기술로 진보되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같은 칼을 사용해본 주방장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불현 듯 생각이 난 이유는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4주차 현장 OJT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 동안 건축을 배워 오면서 스스로 건축을 무식하고, 단순한 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즉, 대만의 칼 가는 노인 이야기 속의 일반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OJT 교육을 받으며 하나 둘 깨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 생각들의 변화에 대한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 타워크레인 설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건설 현장에 언제나 하나 이상은 반드시 우두커니 서있는 타워크레인은 제 안의 지적영역에서 '무거운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그냥 타워크레인'이었습니다. 왜 이 타워크레인이 이 장소에 세워지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며, 어떻게 운반되는지 그리고 몇 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누군가가 한 고민들은 배제한 채 그냥 공사현장에 당연히 서있는 그것이었

습니다.

저 단순해 보이는 타워크레인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현장 환경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과 그 고민들을 최적의 판단으로 풀어가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의 논리들이 질서 정연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 벵스 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주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간섭이 발생하여 충돌의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현장들과 크레인 높이를 수시로 조율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간당 적재하는 양을 세밀하게 계산하고 그 계산 값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효율적인 크레인 가용 댓 수를 산정했습니다. 비록 일부의 사례이지만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만 보더라도 단순해 보이는 일을 정교한 칼로 가는 노력들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

이 후로 OJT기간 내내 여수의 철근가공 공장과 광주의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견학 그리고 벵스 현장 미장공사 인력운영 회의의 참관 등에서 건축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속에 녹아있는 고민들과 논리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그 것을 타워 크레인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던 그것처럼 무지에서 나오는 단순함이 아닌 복잡하면서 정교함이 묻어 있는 새로운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에 사로 잡혀 있던 스스로의 편견을 버리고, 대만의 일류 요리사들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며, 고 스티브 잡스 덕분에 더욱 유명해진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순수의 전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의 무한을 쥐고/ 한 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